# 시대부응 기대…무궁한 발전 바라

## —— 국내외 인사 「현대불교」 창간에 축하 메시지

### 종정 축사

**월하 〈조계종 종정〉**

日月曲穴不施光
溝瀘井低不濕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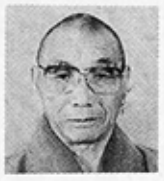
대저, 부처님의 말씀도 경서에 묻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고 옛 조사들의 가르침도 서적에 갇혀 있으면 쓸모가 없나니 꾸준히 참구하고 뜻을 밝혀 만인의 마음 문을 여는 일이 값진 불사라 할 것이다. 일월(日月) 같은 현대불교신문이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빛나는 마음을 굽은 동굴, 우물밑까지도 널리 펴려 함이니 앞길에 거칠것 없고 백련홍련 만발하리라.

**보성 〈태고종 종정〉**

화엄경에 보면 '어둠속에 들어있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물질우선과 금전만능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 인간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불교」는 오늘의 인간과 세계에 드리워지고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밝혀내는 등불의 역할을 해 달라.

**각해 〈진각종 총인〉**

법계의 총만하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귀명하오며,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는 단지 불교만을 위한 불교의 홍보지가 되기 보다는, 일체중생을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극락정토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쓰는 불법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암 〈법화종 종정〉**

부처님법은 제세의 근본이고, 자비는 처세의 근본이며, 화합은 치사의 근본이며, 근면은 치가의 근본이며, 충언은 인사의 근본이고, 성실한 행동은 성공의 근본이다. 「현대불교」는 이러한 뜻을 잘 간직 불자들의 눈과 귀를 이끌어달라.

**대천 〈관음종 종정〉**

모든 시청각의 범람시대에 청량수가 되고 자비의 손길이 될 수 있고 고통받고 괴로운 이에게 천수천안이 되도록 창간하는 뜻을 그대로 계속 지속시켜 줄것을 당부하며 창간을 축하한다.

**경조 〈불입종 종정〉**

「현대불교」가 언론의 사명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것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현대불교가 불교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

**록정 〈불교총지종 종령〉**

빠른 정보와 정확한 기사를 토대로 각 종단, 종파간의 정보교환의 매개체 역할과 불법전파의 선두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창간하는 「현대불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 함께 하시며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한다.

**금암 〈법륜종 종정〉**

언론은 형체없는 화살이라 척사현정의 전위가 되어 명실상부한 예도로서 혼탁한 교계의 면모를 해부하고 현묘한 침봉으로 부실한 맥을 살려서 앞으로는 또다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정자의 역할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운파 〈조동종 종정〉**

허공계는 내외가 없듯이 미망의 집착에서 해탈한 심법 또한 이와 같음이니 이 진리를 요달한 자 불생불멸의 진아를 찾은 각자라 하겠습니다. 신문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전해주는 법보로서 문서포교지로서 사명을 띠고 있는 바 「현대불교」가 암야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김수환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나라 안팎의 빠른 변화 속에서 개인은 물론 민족 공동체가 걸어야 할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배금사상과 물질만능 풍조가 만연해 있고 인명경시의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음을 믿기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창간하는 「현대불교」가 바로 생활속의 길잡이로서 현대사회를 밝히는 빛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불교는 항상 열린자세로 종교간의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열린 지구촌에서 종교다원주의시대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창간되는 「현대불교」는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서는 전체민족이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전팔근 〈전 원광대 부총장〉** = 모든 대중의 밝은 눈이 되고 투철한 귀가 되며 올바른 입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현대불교가 불심을 바탕으로 교화 및 구도매체로서의 거시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때 창간의 면목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천 〈동국대학교 총장〉** =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불교」가 이름 그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불교가 무엇이며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고도 알기 쉽게 가르쳐줄 것으로 믿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도와 일반대중에게 알리는데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불교를 케케묵은 낡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끔 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많은 불교의 고전들을 일반대중이 고루 읽도록 하는 일에도 「현대불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지심 〈소설가〉** = 사람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가치관의 기준까지도 거기서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때 불교계를 대변해줄 「현대불교」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신문을 창간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대불교」가 불자로서의 긍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섭 〈문체부장관〉**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참자유·참생명이 가득한 세계를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처럼 일상생활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행과 불교교리의 현대화, 그리고 세계적 포교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전 사부대중의 사랑받는 불교전문지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태호 〈불교방송 사장〉** =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직필정론의 대중포교지가 될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교계신문도 선의의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질높은 내용으로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천만 불자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간직될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지면과 방송을 통하여 걸림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불교방송과 현대불교가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돈각 〈진흥원이사장〉** =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알찬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계도 여러 방면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야만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보존,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의 창간은 모든 불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보다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대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불교사에 남는가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불자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권익현 〈국회정각회장〉** = 국민들이 갈망하는 법음을 들려주는 신문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는 최근의 몇몇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금전만능과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으뜸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불교에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허경만 〈민주불교신도회 회장〉** = 큰 포부를 갖고 희망차게 출발하는 「현대불교」의 장도를 기원하며 창간을 축하합니다.

불자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공정한 정론지 및 생활불교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곽정출 〈민자불교신도회장〉** =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론지로서 불자들과 함께하고 불교를 알고자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갖게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서석재 〈국회정각회 고문〉** = 특정한 계층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해 중생의 언어로 가르침을 설하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번에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계승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의 언어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해 주는 신문, 사회의 도덕성회복, 민주복지사회 건설, 나아가 통일에 이바지하는 불교개혁의 조타수가 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태용 〈불교TV 대표이사〉** = 내년 3월 1일 개국되는 불교텔리비전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에도 공동보조를 취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 치유에 적극 앞장서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명실공히 맑고 향기로운 불국정토가 이땅에 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탄스님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 「현대불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불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현대불교」는 참 가치관과 보시정신을 가지고 인간성회복과 불심계발에 최우선을 두는 교화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혜총스님 〈석림동문회장〉** = 이제 고고의 초성을 발하는 「현대불교」여! 쓰여지는 글귀마다 중생을 이익케하고 읽혀지는 구절마다 불심을 증장케하여 반목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심어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자비를 일게하여 부처님께서 본래 유훈하신 「세계일화」를 이루게 하소서.

**송산스님 〈중앙승가대학장〉** = 「현대불교」는 불교신문으로서 정도에서 이탈되어서는 안되고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기사의 게재라든가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의 게재로 불교의 청순함을 잃어버리고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교계언론을 이끌어온 경영진과 편집진·보도진이 총 망라돼 만들어지는 현대불교가 포교지로서 소식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언론매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효림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 현대불교가 언론의 대업에 동참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말씀에 따르는 바른 언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강남석 〈군승단 단장〉** = 불자장병 20여만명과 함께 「현대불교」의 힘차고 당당한 정론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휘호 = 如初 김응현

### 해외

**달라이라마 〈티벳 승왕〉** = 본인은 한반도에서 불교문화가 창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현대불교」가 창간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티벳과 한국의 문화는 모두 수세기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처음 가르침을 펼친 이래 2천5백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법은 세계평화와 개인의 행복에 깊이 공헌한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편집자와 독자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며 더욱 깨어있으므로써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산아 다르마시크티 〈세계불교도 연합회장〉** = 본인은 신행의 길잡이 및 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현대불교」가 10월 15일 창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곧 대중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이루며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대불교」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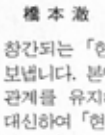
**에티폴라나아카테로 〈스리랑카 대승정〉** = 스리랑카의 모든 불자들을 대표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불법을 전파하고자 창간되는 「현대불교」에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한국 불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알루비하라야 사원을 대신하여 「현대불교」가 세계적으로 불법과 광화를 전파하는 대업에 동참함에 축복과 지지를 보냅니다.

**잠롱 〈전 태국 방콕시장〉** = 「현대불교」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21세기의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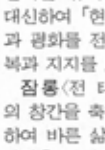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신문이 한국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石原大道 〈일본 대법륜각 대표〉** = 훌륭한 이념을 내걸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이념과도 상통하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사는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귀신문의 발전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황심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 「현대불교」가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의 증진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업공덕을 드날리고 넓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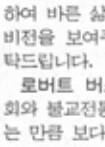


**틴원 〈주한 미얀마 대사〉** = 본인은 새롭게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 신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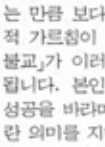


**檜本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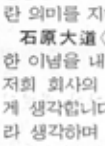
창간되는 「현대불교」에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한국 불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알루비하라야 사원을 대신하여 「현대불교」가 세계적으로 불법과 광화를 전파하는 대업에 동참함에 축복과 지지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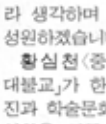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신문이 한국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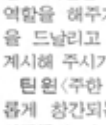
**石原大道 〈일본 대법륜각 대표〉** = 훌륭한 이념을 내걸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이념과도 상통하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사는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귀신문의 발전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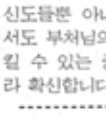
**황심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 「현대불교」가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의 증진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업공덕을 드날리고 넓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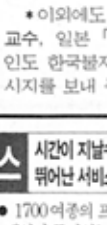
**틴원 〈주한 미얀마 대사〉** = 본인은 새롭게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 신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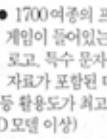
**檜本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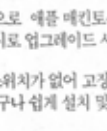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신문이 한국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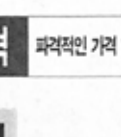
**石原大道 〈일본 대법륜각 대표〉** = 훌륭한 이념을 내걸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이념과도 상통하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사는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귀신문의 발전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황심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 「현대불교」가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의 증진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업공덕을 드날리고 넓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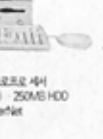
**틴원 〈주한 미얀마 대사〉** = 본인은 새롭게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 신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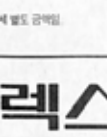
**檜本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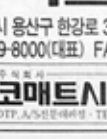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신문이 한국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石原大道 〈일본 대법륜각 대표〉** = 훌륭한 이념을 내걸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이념과도 상통하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사는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귀신문의 발전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황심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 「현대불교」가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의 증진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업공덕을 드날리고 넓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틴원 〈주한 미얀마 대사〉** = 본인은 새롭게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 신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檜本澈**

* 이외에도 버클리대학 루이 랭카스터 교수, 일본 「불교타임스」 대표 檜本澈, 인도 한국불자회 현동화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 꿈의 컴퓨터 - 파워 매킨토시

현존하는 어떤 PC보다 빠른 컴퓨터 -
매킨토시부터 DOS, Windows 등
모든 PC의 사용환경을 지원하는 컴퓨터 -
미래에 필요한 첨단기능이 모두
기본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
진정한 멀티미디어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바로, 꿈에 그리던 컴퓨터입니다.

일반PC의 한계를 깨뜨린 64비트
멀티미디어PC-파워 매킨토시.
새로운 PC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파워 PC 칩이란?**

파워 PC 칩은 애플, IBM, 모토롤라가 공동개발한 RISC 방식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뛰어난 처리속도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파워 PC 칩은 기존의 486 과 같은 CISC 칩에 비해 월등한 처리속도와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보장하는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입니다.

IBM MOTOROLA

* IBM, 모토롤라, PowerPC, 펜티엄, DOS, Windows, 한글, Lotus, 칩 신생은 각사의 공식등록 상표임.

■ 엘렉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파워 매킨토시 안내 책자를 드립니다.

**파워속도** 최고 10배 이상의 놀라운 처리속도, 풍부한 용량

■ 486PC에 비해 5~7배, 펜티엄보다 3배 이상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처리속도에서 가장 앞선 파워 매킨토시-
PC의 일반기능인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쉬트, 통신 등에서의 뛰어난 성능은 물론 그래픽, 이미지 프로세싱, CAD 등 전문분야에서는 최고 10배 이상의 빠른 처리속도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진정한 64비트 멀티미디어 PC
64비트 RISC구조의 파워PC 칩과 일반PC의 2배인 8MB의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한 파워 매킨토시 -
복잡한 그래픽, 동화상,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486SX 를 1.0 기준했을때 파워 매킨토시와 펜티엄 PC 처리 성능 비교 (일부록 고정임) (자료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파워사용**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 일반 DOS용 한글까지 활용

■ 3세 아기부터 80세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
어렵고 복잡한 영어로 된 명령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TV처럼 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매킨토시 -
하루만 배우면 컴퓨터의 일반기능부터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집 컴퓨터입니다.

■ 매킨토시 OS, DOS, Windows를 함께 사용
뛰어난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며, 한글, Lotus, 컴선생 등의 DOS용 프로그램까지 사용가능한 파워 매킨토시 -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아빠, 학교에서 DOS 명령어를 배운 아들, 그림그리기가 취미인 엄마까지 우리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컴퓨터입니다.

* 한글 등 DOS 용 프로그램 사용가능

* 업그레이드된 한글 클라리스웍스 2.0 기본제공
* 디스켓레이, 영함과학, 비디오테일러, 도서관리, 홈뱅킹 장부, ClipArt, Fax양식, Letter Merge, 논문생활, 영문활용부, 성적관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본내장

**파워기능** 파워 매킨토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멀티미디어기능

* 컴퓨터 VTR을 연결하여 비디오 편집을 통한 영상작품 생산가능
* 애플사 CD-ROM 드라이브
* 마우스 이용 동화 사용법이 있는 우일 프로그램
* 비디오, 사운드 스캐너의 멀티기능 기본제공

■ 영상자료의 입력은 물론 출력까지
캠코더와 VTR을 활용, 가정에서 영상 전자앨범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화면을 비디오 테입으로 녹화
컴퓨터 작업 내용을 비디오 테입으로 저장하여 기업, 학교, 관공서등의 회의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종의 다양한 CD사용이 가능한 CD-ROM탑재
매킨토시 및 일반 PC용 CD, 영상반주 CD, 오디오 CD, Photo CD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16비트 스테레오사운드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 두 대의 모니터를 동시 연결(Dual Monitor)
비디오 를 보면서 게임, 문서작성, 계산, 그래픽, CAD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전용 AV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헤드폰 연결단자, 음량조절, 녹음버튼이 전면에 부착된 멀티미디어용 오디오비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서비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뛰어난 서비스

● 1700여종의 프로그램과 300여종의 게임이 들어있는 CD2000 Ⅱ, 국기, 로고, 특수 문자등 2000여종의 그림자료가 포함된 데이타 뱅크, 노래방 CD 등 활용도가 최고인 4종의 CD 무상제공 (CD 모델 이상)

●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 매킨토시를 파워 매킨토시로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나사와 Dip스위치가 없어 고장이 극히 적고 누구나 쉽게 설치 및 사용가능

**파워가격** 파격적인 가격 198만원 부터

6100/60
60㎒속도 파워PC 601 마이크로프로세서
8MB RAM(최대확장 72MB) · 250MB HDD
소프트 윈도우 기본제공 · EtherNet

6100/60 CD
60㎒속도 파워PC 601 마이크로프로세서
8MB RAM(최대확장 72MB) · 250MB HDD
(애플 CD-300 플러스) 내장 · EtherNet

* 상기 가격은 모니터,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엘렉스센터(전시/판매장)
● 서울
◎ 용산점 704-1707 ◎ 신촌점 701-6344 ◎ 홍대점 723-9567 ◎ 신림점 883-8293 홍무로점 263-0055 ◎ 여의도점 782-4384 ◎ 신사점 546-5525 ◎ 시당점 525-3100 신설점 566-9330 ◎ 목동점 747-0180
◎ 정실점 424-8307 ◎ 롯신선전자가 717-4088 ◎ 입구점 549-0349 청량리점 959-3414 ◎ 강서점 698-0891 성동점 299-3393 구로점 857-8357 중구점 273-6960 노원점 825-8471 목동점 653-2187 동신전문타이날 719-9659 서초점 526-2617
홍대점 335-0451 대치점 558-5727 건대점 499-1970
◎ 인천 인천점 (032) 873-0471
◎ 부평 부평점 (032) 524-7557
◎ 김해 김해점 (0391) 647-9513
◎ 대구 중앙점 (053) 421-5150
◎ 대구 종로점 (053) 256-1383
◎ 논산 논산점 (0462) 83-1277
◎ 전주 전주점 (0652) 251-4111
◎ 군산 군산점 (0654) 445-5544
◎ 광주 중앙점 (062) 223-9911
◎ 여천 여천점 (0653) 658-1386
◎ 목포 목포점 (0631) 44-4044
● 순천 순천점 (0661) 722-1655
◎ 청원 청원점 (0561) 84-1815
◎ 울산 울산점 (0522) 73-1122
◎ 부산 부산대점 (051) 516-3493
◎ 부산 동래상가점 (051) 555-3546
● 부산 중앙점 (051) 468-0096
◎ 부산 서면점 (051) 804-6811
● 부산 동아점 (051) 552-5831
◎ 제주 제주점 (064) 21-4545
● 전문대리점
● 서울
◎ 한스테크(압구정동) 545-6590
◎ 대웅시스템(조원동) 511-0440
◎ 컴버스시스템(신사동) 512-2560
동료소컴퓨터(중무동) 263-0055
◎ 대화컴퓨터(전자랜드) 704-1707
◎ 우진데이타시스템(신용) 701-1117
◎ 휴일시스템(여의도) 782-1896
◎ 골든시스템(중무동) 269-6037
◎ 덕유시스템(중무동) 269-0543
백화무스(역삼동) 563-5590
◎ 하이스컴퓨터(여의도) 786-0090
◎ 교육전시스템(인천동) 266-9127
◎ 유덕컴퓨터(반포동) 596-0561
세일포트(지동) 277-6033
◎ 한일(중무동) 273-6962
일마테이타시스템(서초동) 521-5633
한국정보서비스(상상동) 561-8141
아산전자(역삼) 703-1114
공진상(역삼) 718-6883
한국커뮤니케이션(역삼동) 566-0803
기종시스템즈(일동) 263-6708
대유시(영등포동) 634-9438
데이타에 중무동) 263-6485
제작일 그래픽스(일동) 273-5141
제시스 컴퓨터(당산동) 631-9248
● 인천 도두시스템(도화동) (032) 874-6060
● 수원 대림시스템(고등) (0331) 42-9454
● 천안 한나컴퓨터 신부동(0417) 554-7373
● 대전 성동컴퓨터(정동) (042) 221-3131
● 대구 대구중심동 구 중앙극장(053) 421-5626
● 대구 대구컴퓨터센터 금호빌딩 (053) 256-1383
● 광주 동성컴퓨터(남동) (062) 223-9911
● 청원 청원컴퓨터(중앙동) (0561) 84-1866
● 부산 맥스컴퓨터 중앙동 (051) 464-7052
● 컴퓨터월드전문점
브라이컴퓨터 서초동 (558-6345)
■ 파워북전문점
● 용산전자타운 703-4206
■ 백화점 전시판매장
롯데 본점, 영등포점, 잠실점 롯데백화
미도파 본점, 상계점, 청량리점
신세계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천호점
현대 본점, 무역센터점, 상봉, 그랜드
뉴코아 본점, 과천점, 한신코아
■ 업체(포스)대리점
서울영업소(신천동) (02) 411-1458
◎ 대구영업소(범어동) (053) 558-0500
포항영업소(포항동) (0562) 82-5311
부산영업소(초량동) (051) 464-4345
광주영업소(북구동) (062) 364-0280
■ 업체
삼성데이타시스템(미근동) 360-6143
덕현금성시스템(여의도동) 787-6515
동양 SKL(을지로) 754-0854
신라정보시스템(대치동) 563-6091
삼미전산(갈월동) 790-6505
◎ 는 A/S 전문 지정점임

엘렉스컴퓨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7
TEL : 709-8000(대표) FAX : 709-8451~3
주식회사 코매트시스템
DTP, A/S전문대리점 · TEL (02)266-6127